



남원시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을 하반기에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 노인복지사업 역점 추진

살기좋은 고을가꾸기·노노케어 등 5개영역 33개 사업 진행

남원시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을 하반기에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 65세 이상 인구는 5월말 현재 전체 인구의 24.3%(20,574명)로 노인복지가 시정의 주요 사업이다.

먼저, 노인의 생활안정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총 32억원을 들여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사업은 현재 참여인원이 1,649명으로 4개월째 살기 좋은 고을가꾸기, 노노케어, 새싹보듬 이사업, 생명지킴이 등 총 5개영역 33개 사업분야에서 지역특성과 노인 역량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인재능나눔 활동사업도 추진한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초연금 미수급자 중 재능이 있는 30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8월 까지 실시하는 이 사업은 1억8,600만 원을 들여 대한노인회남원시지회에서 경로당 안전관리, 노노케어, 게이트볼·한글 지도에 참여하고 있다.

남원시 기초연금 지원 연간예산은 386억원으로 6월에 1만6,733명의 노인에게 3,043백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했다.

남원시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81.3%로 전국 평균 수급률 66.7%를 크게 웃돌고 있다.

대표적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484개소에 18억6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모든 경로당에 냉방기를 설치해 어르신들이 안전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당초 예산 20억원보다 추경예산에 3억원이 증액된 총 23억원을 확보하여 154개소의 경로당과 게이트볼장의 신축, 개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여가활동을 지원한다.

동절기 4개월간 운영되는 두레사랑방은 주민의 적극적인 호응속에 올해 더욱 확대되어 72개소에서 위기상황 대처능력이 없는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 신체적·심

리적·정서적·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두레사랑방은 이용노인뿐만 아니라 가족 및 사랑방 운영 관계자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조사결과 입주어르신 90.3%, 운영관계자 86.8%, 입주어르신 자녀 88.8%가 "만족하다"고 답했다.

여가·건강·일자리·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2년 개소하여 명품 노인복지관으로 성장하고 있는 남원시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 하여 25개 사업 61개 프로그램으로 노인들의 취미생활과 교양 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은둔형 노인, 또는 거동불편 노인, 우울하거나 자살 위험이 높은 소외된 노인에게도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240여명에게 3억2,500만원을 지원하여 말반찬 배달, 독거노인친구 만들기, 무료 급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박우정 고창군수가 민선6기 전반기 마무리하고 후반기 시작하며 봉사활동과 현장방문 등으로 주민 곁에 더욱 다가서고 향후 비전을 함께 공유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박우정 고창군수 성과분석·향후방향 모색

(민선 6기 전반기)

후반기 봉사활동·현장방문으로 시작 주민들 곁으로 다가

박우정 고창군수가 민선6기 전반기 마무리하고 후반기 시작하며 봉사활동과 현장방문 등으로 주민 곁에 더욱 다가서고 향후 비전을 함께 공유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박우정 군수는 4일 이른 아침 환경미화원들과 고창을 시가지 청결활동을 벌이고 조찬을 함께 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전 직원이 함께하는 월례조회인 '비전다짐의 날' 행사를 가졌다.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전다짐의 날' 행사에서 박 군수는 공직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통해 민선 6기 전반기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군정 운영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선 6기 군정의 안정과 원활한 발전을

위해 전력투구한 공직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군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군정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현명한 이용 △세계유산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관광인프라 구축 △소외반은 군민이 없는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녹색수산환경기반 조성 등 지금까지의 성과를 발판삼아 더욱 힘차게 군정 비전을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

늘 주민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화합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군정을 추진해 온 박 군수는 마을 수원사업 해결, 아름답고 청정한 마을가꾸기, 생활 속 군민보호를 위한 안전인프라 구축 등 주민들의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마련과 고창군 발전을 위한 능동적 행정을 선보이며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 군수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고창군이 가진 전통과 문화유적자원을 자연생태자원과 연계·결합해 세계최고의 자연생태관광도시로 육성하고 이를 위해 도로기반구축과 고창특별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6차 산업 육성과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히며, 더욱 안전하고 사계절이 즐거운 '한국인의 분향'으로의 발전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비전다짐의 날 행사 후에는 상하연 용대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인 '아름다운마을'에서 중식 배식과 장애인 의견 청취 및 화답의 시간을 가진 후 심원면 귀농귀촌 세대와 흥덕면 특화작물 재배농가 방문, 지역기업인 '사임당푸드'를 찾아 주민과 호흡하는 현장·소통행보를 이어갔다. /고창=김영식 기자



아름답고 산뜻한 마을가꾸기

고창군 향산마을 분리배출장 옆면 환경지킴이 나무 그려

고창군(군수 박우정) 성송면 향산마을 주민들이 아름답고 청정한 마을가꾸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성송면 향산마을은 모든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위해 주민설명회와 자율참여 동의를 통한 분위기 조성을 시작으로 매월 1일, 15일을 자율청소의 날로 정하고 꽃길 조성, 재활용품 분리 등을 통해 농사일로 지저분해지기 쉬운 마을 환경을 아름답고 청정한 마을로 변모시키고 있다.

향산마을은 지난 1일 주민들의 환경지킴이 결의를 담은 손도장을 찍는 환경지킴이 나무그리기 행사를 가졌다.

주민들은 쓰레기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순환되는 자원이라는 인

식을 공유하며 주민들의 재능과 자원을 모아 만든 마을 쓰레기 분리배출장 옆면에 환경지킴이 나무를 그리고 손도장을 찍어 주민들의 참여로 아름답고 청정한 향산마을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홍성문 이장과 주민들은 "바쁜 농사일에 쫓겨 마을을 가꾸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는데 주민들이 합심하니 더욱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을 만들 수 있어 보람된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작은 노력이 더욱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아름답고 청정한 마을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농업경쟁력 강화·국가예산 확보 중점

황순주 순창군수 민선6기 후반기 군정 방향 설정

"순창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경쟁력 강화에 농민들이 행복하게 농사를 짓게 해주고 최대한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해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하는게 중요합니다."

또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여 관광객을 유입하고 지역의 농특산물이 잘 팔리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황순주 군수가 4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 7월 중 월례조회에서 민선 6기 후반기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황순주는 별도의 행사 없이 민선 6기 후반기 시작을 알리는 행사를 7월 중 월례조회로 대신했다.

황순주는 먼저 "옛그제 선거를 치른 거 같은데 벌써 민선 6기 절반이 지나갔다"면서 "2년 동안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힘 없이 달려왔고 그만큼 많은 성과도 있었다. 이렇게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건 여기 모인 직원 여러분들의 땀의 결실이다"고 2년 동안 애써준 직원들을 격려했다.

황순주는 민선 6기 전반기 성과에 대해서 향기오토캠핑장개장과 코레일과 협력한 관광객 유치 등 500백만 관광객 유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 관광

분야성과, 공공도서관 건립, 작은영화관 건립, 미술관건립 등의 성과로 문제부 선정 문화도시 전국 우수군 10군 안에 선정된 문화분야, 광역친환경농업 단지 완공, 전북최대 친환경인증면적 확보의 친환경농업 분야를 대표적 성공사례로 언급했다.

또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통해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출산장려금을 높이고 여성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설들을 만들어 여성과 아이들이 살기 좋은 순창 만들기를 위해 노력한 점도 보람 있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황순주는 "해운 일보다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게 느껴진다"면서 "민선 6기 후반기에는 농업경쟁력 강화와 국가예산확보, 군 브랜드 가치 향상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공무원 개개인이 내가 군수라는 생각을 갖고 일을 추진한다면 전반기 보다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순창을 위해, 군민을 위해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마음을 갖고 자신의 맡은바 일에 충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노암산단 확포장 사업 8억원 확보

특별교부세 받아 조기준공 탄력

남원시(시장 이환중)가 노암산단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에 8억원의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이환중 시장과 이용호 국회의원이 행정자치부장·차관 등 정부 관계자를 수차례 방문해 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지역 현안수요 항목인 특별교부세로 8억원을 확보하여 조기준공에 탄력을 받게 됐다.

관계부서에 따르면 노암산단단지(노암1.23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은 서남원 IC에서 노암 산단단지까지 연결하는 도로로 그동안 도로가

협소하여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예산부족으로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시장과 국회의원이 협력하여 이룩한 첫 작품으로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함으로써 내년도에 전체 공정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이환중 시장은 "지역 주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소소한 생활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시장과 국회의원 역할이 따로 없이 충분히 협력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국회특정

임실군 의견문화제 결산총회 개최

임실군은 오수면사무소에서 의견문화제제정위원회 위원 및 오수면 향후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2회 의견문화제 결산총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일 열린 총회는 위원에 처한 주민을 구하고 의롭게 죽은 오수개의 희생정신과 역사적인 가치를 인성과 도덕, 교육적 가치로 승화 발전시키고 한국 반려견 문화를 선도하겠다는 당찬 목표 아래 지난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제32회 의견문화제'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분석이 이뤄졌다.

또한, 이번 결과보고회에 앞서 지난 6월 21일에는 임실군 축제육성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금년도 의견문화축제가 그동안의 관람형 축제에서 참여형 축제로 변하면서 축제를 통해 명실공히 의견과 애견의 고장으로서 성장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제32회 의견문화제는 관람객 2만여명이 행사장을 방문함으로써 의견의 고장 '오수'가 세계적인 애견 문화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일차기 구성된 프로그램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성공적인 축제였다는 평을 얻고 있다. /임실=진중영 기자

남원시농기센터 이환중 소장 취임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이환중 소장 취임식이 최근 3층 강당에서 직원 및 농업인 단체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분하고 검소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취임한 이환중 소장은 1959년 2월 운봉 출생으로 1979년 임용되어 열과 성을 다하여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한 결과 토양, 식량작물분야 최고 권위자로 남원 농업인인민 누구나 인정하는 농촌지도 공무원이다.

이환중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농촌의 현실이 점점 어려워져 가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몸담고 있는 농업은 생명이며 국가 식량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농업인, 공직자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하는 농업현실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직원역량강화에도 힘써 질 높은 지도사업 서비스제공과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현실적인 지도사업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농아동안전지킴이집 방문간담회

순창경찰서 남계파출소에서는 최근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여성범죄에 총력 대응하고 협력치안 강화를 위해 관내 11개소의 아동안전지킴이집을 방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여성범죄를 예방을 위해 경찰 치안시책 홍보 및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한편 아동 보호활동 및 범죄 신고자 역할 활동에 감사의 뜻과 기념품을 전달하며 안전의 파수꾼이 돼 줄 것을 부탁했다.

이동권 파출소장은 "아동이 범죄의 위협을 받거나 길을 잃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때 구조나 도움을 요청하면 임시보호 및 경찰에 연계해 도움을 보호하는 협력치안활동은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활동으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자원순환 실천마을 조성

임실군이 마을별 특성에 맞는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덕면 조월마을을 '자원순환 실천마을'로 조성하고 있다.

'자원순환 실천마을'은 마을별 쓰레기 배출 특성을 반영한 자원순환 테마마을로 그동안 조월마을의 쓰레기 배출형태 및 재활용 특성을 분석해 배출시스템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환경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쓰레기 배출시스템 개선을 위해 재활용 클린하우스, 영농폐기물 분리보관시설을 조성하고 정크아트, 친환경 비누 만들기 등 교육장을 마련해 주민 및 방문객 등의 재활용 체험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다. /임실=진중영 기자